

작년 관광객 132% 증가... '체류형 문화관광' 통했다

여행자의 집·달빛시티투어 인기
3대축 역사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내년부터 남부권 개발 1단계 돌입

광주시 동구에 지난해 4,000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전략 행보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구도심이 보유한 역사·문화자원과 '동구 관광 3대 축'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볼거리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해 전세계인이 머무를 수 있는 야간관광도시로 각인시키겠다는 전략이다.

11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전담여행사 관광 상품을 통해 동구를 방문한 타지역 유료 관광객이 4,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714명)보다 132% 증가한 수치다.

올해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조성에 가장 역점을 둔 동구가 운영하고 있는 '여행자의 ZIP(집)', '광역시티투어' 등은 이미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시 동구가 동명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센터 '여행자의 ZIP'이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왼쪽). 동구는 이달부터 '동구-대구 달빛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 동구가 동명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센터 '여행자의 ZIP'이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왼쪽). 동구는 이달부터 '동구-대구 달빛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동명동에 위치한 여행자의 ZIP은 관광안내센터이자 복합전시공간으로 동구 여행 유형검사(ZPTI) 등 체험형 관광 패키지를 제공한다.

'서울 출발, 광주 동구 광역시티투어'와 '광주 동구-대구 달빛시티투어'도 지난해에 이어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연말까지 매주 주말(토·일)마다 운영되는 동구 광역시티투어는 야간·예술·힐링으로 구성된 3가지 테마 관광을 즐길 수 있다. 광주와 대구의 문화관광 교류 협

약 체결 이후 시작한 '달빛시티투어' 도이달부터 12월까지 매달 첫 번째 토요일마다 운영한다.

동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국립공원 ▲지산유원지 등 '동구 관광 3대 축'을 기준으로 지역 곳곳에 산재한 유·무형의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해 특색있는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는 '빛의 분수대' 조성을 시작으로 연차별로 전당 일원에 광주읍성

유허를 상징하는 '빛의 읍성', '빛의 거리'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한 '아트패스' 상품을 개발·운영하는 등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관광 실현을 위한 통합 플랫폼 '스마트 아트빌리지 조성'을 본격 추진 중이다.

무등산국립공원에는 지난해부터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무등산 생태문화 콘텐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구는 춘설현, 춘설차

밭, 오방수련원, 의재미술관 등 무등산 일대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해 특화된 인문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내달 개최되는 무등산 인문축제 '인문 For:rest'를 비롯해 무등산 테마 애니메이션 제작, 인문 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산유원지권은 지산유원지 사업 시행자가 재지정됨에 따라 향후 구 신양파크 부지 개발계획과 연계해 발전전략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광주와 전남, 부산·울산·경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개발 사업'도 내년부터 훈풍이 불 전망이다. 동구는 3개 광역관광권 중 광주·전남이 포함된 남서권 광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024년부터 1단계에 돌입할 예정이다.

입력 동구정장은 '의향(義鄕), 예향(禮鄕), 미향(味鄕)의 고장 동구는 밭길 닿는 곳마다 미술관, 박물관이 즐비한 문화도시이다'며 "올해는 '동구 관광 3대 축' 연계 사업 추진과 함께 전 세계인이 쉬고,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



광주시 동구는 최근 '당신의 봄에 즐거움을 켜라'를 주제로 라온페스타를 개최했다. /동구 제공

'라온페스타' 총장상권 활성화 '톡톡'

14일간 1만 4천여명 참여
지하상가 매출 2억원 달성

광주시 동구는 지난 24일부터 지난 7일까지 14일간 개최한 '라온(RA_ON)페스타'가 1만 4,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억여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며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

라온페스타는 총장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총장로와 지하 상점가의 소비 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에는 '세계 드림(DREAM)'을 테마로 1년 내내 사계절을 즐길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당신의 봄에 즐거움을 켜라'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봄 시즌 맞춤 프로그램들로 구성됐으며, ▲총장로드 런닝랩(345팀 908명) ▲도심 감성 캠핑(1박 6팀 34명·무박 33명) ▲명인·명장과 함께하는 리폼의 행복(64명) ▲어린이 뮤지컬(376명) ▲유·무료 체험 프로그램(700명) 등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총장로와 충금·금남로 지하상점에서 구매

한 영수증으로 응모할 수 있는 경품 이벤트에는 총 1만여 명이 참여해 2억1,000여만원의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공동 주최한 '중소기업 우수 판매전'에서는 9,800만원의 추가 매출을 달성했다.

향후 동구는 여름 시즌 '특화거리 페스티벌'을 콘셉트로 K-POP 거리 및 도깨비 거리 페스티벌을, 가을 시즌 총장축제와 연계한 총장 버스킹, 총장 나이트·에코 그린 마켓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혜린 기자

'5·18 사적지' 탐방 버스투어 운영

매주 3회...518명 선착순 모집

광주시 동구는 5·18민주화운동 제43주년을 맞아 5월 한 달간 '오월 동구 5·18 사적지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설사와 함께 버스를 타고 5·18 주요 사적지 등을 돌아보는 이번 탐방 프로그램은 매주 3회(수·금·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주요 구간은 ▲마을코스(구 도청→전일빌딩→남동성당(경유)→전남대학교병원(경유)→주남마을→동구 인문학당) ▲광장코스(구 도청→전일빌딩→5·18민주화운동기록관→고흥남순 변호사 가옥→광주 MBC 옛터→동구 인

문학당) ▲민주코스(구 도청→전일빌딩→5·18 최초 발포지(계림동)→국립 5·18 민주묘지→전남대학교) 등이다.

특히 마을코스와 광장코스 참여자는 동구 인문학당에서 1980년 5월 당시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주먹밥 먹기, 춘설차와 사연이 있는 음악여행, 옛 전남도청 입체 퍼즐 만들기 등 체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오는 30일까지 매회 40명 선착순 접수받으며 총 518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참가비는 7,000원(미취학아동은 무료)이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 누리집 또는 인문도시정책과 인권인문사업계(062-608-2192)로 문의하면 된다. /김혜린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17개 품목 추가 선정

광주시 동구는 시행 4개월째 접어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15개 업체 17개 품목을 추가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동구는 최근 제2차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총각김치(농협회사법인 ㈜금치) ▲할머니 그림으로 만든 무드등(플리마코 협동조합) ▲유산균 동치미 냉면(제이에스 바이오컴퍼니) ▲타이백 피크닉 보냉백(행복한쓰임 협동조합) ▲잠새 커피잔과 허달재 화백의 판화(삼애다원)를 추가 선정했다.

신규업체 답례품으로는 ▲관광·서비스 분야

는 증심사 텀스테이(증심사), 한국 게스트하우스 '여로' 숙박권(광주동구시니어클럽) ▲가공식품 분야는 키도 버터바 세트(브라보헬스), 수제 정과 선물 세트(광주동구시니어클럽), 드림백 세트(커피북의 집), 봉봉 초콜릿·아몬드 쇼콜라(비즈니스와르), 증류식 소주 월광주(월광주조) ▲생활용품 분야는 수제 가죽 지갑(마더구스), 전통부채(청라공예사), 광주극장 굿즈(㈜벽동물산), 지역작가 예술작품(예술공간 집)으로 15개 업체 17개 품목의 답례품이 추가 선정됐다. /김혜린 기자

우리지역 광주·전남 제품
지역인재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기업

스탠드형
사무실, 가정용
어린이집, 유치원 특화제품

벽걸이형
경로당, 병원, 노인복지시설
사무실, 초중고 학교용 특화제품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